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따라

〈9〉 대정읍 상모리

미래 관광잠재력 최강의 농어촌 마을

상모리라는 마을 명칭의 연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슬포라고 하는 지명은 모슬개라는 지명에서 왔다. 위치로 구분하여 알모슬개와 웃모슬개 두 개의 마을 중 알모슬개는 하모리가 되고 웃모슬개는 상모리가 됐다.

상모리는 이교동과 산이수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모여 하나의 행정리 명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을 운영조직도를 보면 이교동과 산이수동이 연합체처럼 운영되는 것이 특색이다. 그만큼 전통적인 취락구조에서 오는 독자성을 중시하는 마을이라고 해야겠다.

알뜨르와 송악산, 첫알오름이 떠오르는 마을이다. 섬 제주의 서부지역 굽적한 키워드가 마을 한곳에 모여 있는 상황.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데에도 책 한권이 필요할 사연과 중요성을 가진 지명이 라고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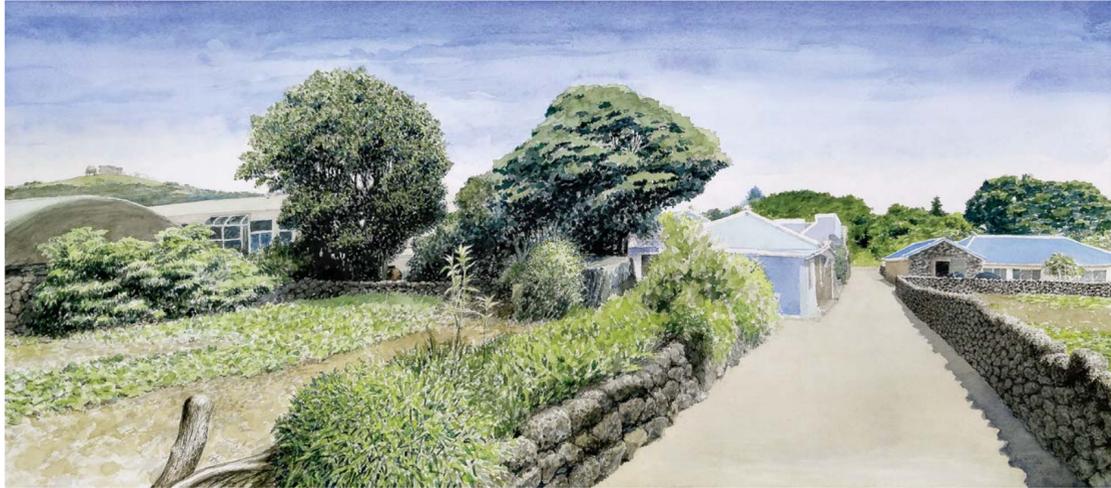
66만여 평에 이르는 평지 농토 알뜨르는 여기서 화산섬이 아니라 육지 어느 평야지대를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 마을 주민들의 족보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보면 17세기 경부터 조상들이 피땀 흘려 농토로 개간하여 만든 땅. 워낙 넓은 면적이라 한 세대에 이뤄질 수 없는 경작지 만들기 역사가 상모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소중한 육토가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군사시설로 강탈당해 빼앗겨버렸다.

해방 이후, 국가는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했음에도 그대로 군사적 목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한 맺힌 알뜨르의 역사를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경찰이 강도를 잡아서 강탈한 물건을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소유권을 가지고 주인더러 입대해서 쓰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알뜨르입니다." 알뜨르는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결코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역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건설된 비행기 격납고 등을 소개하면서 알뜨르 농토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알뜨르의 주인들에게

피맺힌 한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 바닷가로 나가면 송악산과 해안 절경이 있어서 눈부신 발전 가능성과 만나게 된다. 송악산 분화구가 가진 학술적 가치와 경관적 자산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발휘한 것이다. 모슬포항구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송악산 방향으로 오는 길은 평평한 대지와 바다가 만나는 편안한 느낌을 주다가 송악산에 당도하여 조금 경사지대를 오르며 갑자기 펼쳐지는 산방산과 한라산 그리고 수려한 해안선. 섬 제주의 1/4이 시야에 들어오는 묘한 성취감까지 맛보게 해주는 매력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는 상모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들을 활용하여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는 마을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공감대. 마을 경쟁력을 판단하는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전국 어느 마을에 뒤지지 않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생태, 체험, 역사, 문화자원까지 뒤쳐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는 행정적 판단에 의한 관심이다.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치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실천전략이 나와 있어야 한다.

제주 서부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서 외부자본에 의한 무리한 개발이 아니라 보존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마을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관심사로 보이지만 바닷가 낚시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해변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다고 한다. 취향 중심의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는 환경에서 상모리라고 하는 상품성에 기대를 건다. 젊은이들이 왈칵 들어와서 소박한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풍부한 마을이 되는 꿈. 그런 마을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상모리다. 알뜨르 농로를 걸으며 이상화의 시를 읊는다. 빼앗긴 뜰에도 봄은 오는다. <시각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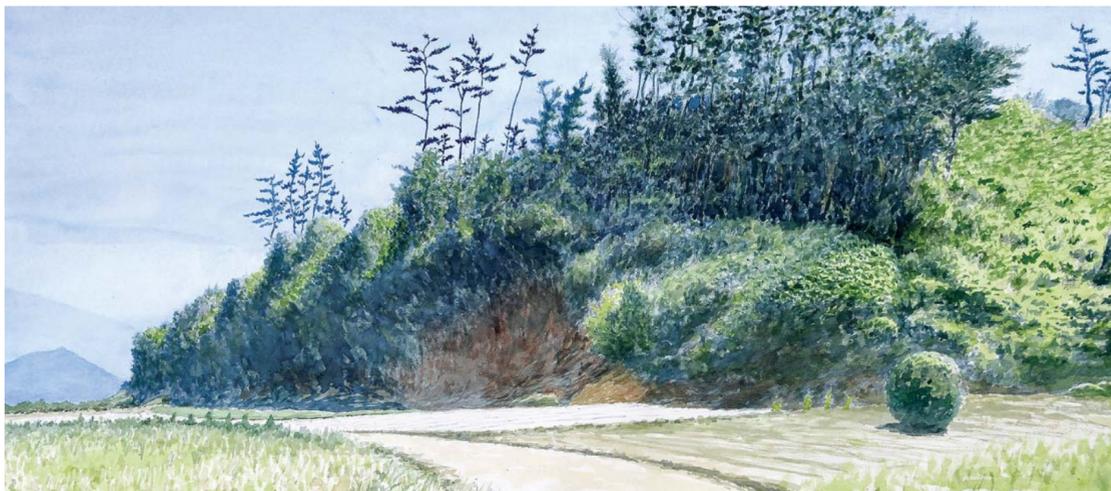
평화로운 채소밭 풍경

<수채화 79cm×35cm>

7월의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빛을 선물하는 날. 사색의 눈으로 마을 안길을 걷다가 농가 옆 채소밭을 만났다. 여러 종류의 채소가 피약벌 아래서 고생이 많다. 숨은 그림찾기처럼 숨어있는 수박 세 덩어리가 정겨움을 더하는 곳. 직접 재배하여 식탁에 올리는 삶이 부럽기도 하고. 멀리 모슬봉 정상에 공군 통신기지와 대비되면서 갑자기 '평화'라는 독백이 튀어 나와 그리

기 시작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농가의 채소밭. 돌담과 돌담 사이로 평평하게 뻗은 길. 상모리 평야지대에서는 만나지 화산섬 제주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그런 평지다. 화면 속에서 거리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쪽 뻗어나간 밭담. 화면 속 광선의 양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법을 총동원해 채색을 하게 된 것은 '눈부신 평화'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욕구가 있어서다. 부족한 화면, 저 채소밭 속에 얼마나 많은 광선을 끌어올 수 있을까. 주변에 집들이며 돌담까지 모두 도와야 가능한 일

이다. 특히 두 그루의 짙은 초록나무들을 통하여 여름날 피약벌을 표현하고 싶었다. 대립하는 듯 조화로운 한 쌍의 나무. 시간이 쌓여 있는 것이 나무라고 했던가! 채소밭과 집 사이에 서서 오랜 세월을 가족 구성원이 되었을 법도 하려니와. 상모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눈부신 채소밭으로 위로하고 싶었다. 평화를 그리며 대적점에 있는 전쟁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면 전쟁은 저 채소밭의 잡초 한 포기에도 불과하다. 뽑아서 던져버려야하고. 던져버리면 그만인 것.



첫알오름에서

<수채화 79cm×35cm>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 옆이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잘려나간 듯 흠뻑이 생긴 곳에 이르러 물끄러미 숙연한 자세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유대인들에게 통곡의 벽이 있다면 첫알오름이 만든 이 절벽 또한 통곡의 벽이 아니겠는가. 6·25 전쟁 시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국군에 의해 자행된 210명 학살. 인간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가장 미친 것이 전쟁이라고 했다면 악마보다

사악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학살'이라고 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사람들... 그 무덤덤 여름날, 일본 군국주의가 군사기지로 만들면서 첫알오름에 폭탄창고를 만들었는데 패망하고 미군이 들어와 그 폭탄 창고를 폭파하자 첫알오름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 움푹 파인 곳에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학살하여 암매장했다. 국가가 저지른 만행이다.

그 여름날 내리쬐던 슬픔을 그리려 했다. 질긴 생명력의 상징 제주 해송들이 흔

백처럼 솟아나 첫알오름에 뿌리를 내렸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두런두런 맺힌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가늘고 야윈 몸으로 하늘 향해 춤을 추는 동작이며.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도 하다. 통곡의 흠뻑은 천상의 해송들과 지상에 휘어져 어디론가 향하는 길과 밭들로 구분 지어졌다. 공간적 슬픔이란 이런 것이라니. 추모비 옆에는 '명예회복 친흔비'가 있다. 첫알오름은 끊임없이 묻는다. 명예회복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이 해야 하는가? 전 세계 인류 앞에 답하라.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니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색다른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3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 | | |
|--------------------------------------|------------------|
| 특A : 1인 75,000 | 궁중해장국효종갱 14,000원 |
| A : 1인 55,000 | 왕갈비곰탕 14,000원 |
| B : 1인 45,000 | 인삼꼬리곰탕 17,000원 |
| C : 1인 35,000 | 도토리탕 14,000원 |
| 점심특선 한정식 1인 25,000 (도민할인가 → 22,000원) | 소머리곰탕 10,000원 |
| | 소불고기 12,000원 |

※ 본 사진은 특A코스입니다.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

1층 만배성 밥집(11:00 ~ 17:00)

결혼 피로연, 돌잔치 100명 이상 행사 가능 (사전예약 받습니다) 문의 712-6800

피로연, 돌잔치 메뉴

- | | |
|--|---------|
| 불고기 정식 | 17,000원 |
| 소불고기 + 돼지고기, 순대, 두부 + 잡채 + 반찬5종 + 밥, 국 | |
| 갈비탕 정식 | 17,000원 |
| 갈비탕 + 돼지고기, 순대, 두부 + 잡채 + 반찬5종 + 밥 | |
| 성계국 정식 | 17,000원 |
| 성계국 + 돼지고기, 순대, 두부 + 잡채 + 반찬5종 + 밥 | |

원하시는 메뉴 또는 메뉴 추가시 상담 후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